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2월 16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재생정책과	담당자	• 재생정책팀장 강영석 ☎440-4501 • 담당자 임춘매 ☎440-45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촌마을,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

- 국토부,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 최종 선정 ... 국비 120억 확보 -

- 골목상권 자생 거점시설 조성, 지역특화 로컬브랜드 육성 등 높이 평가 받아 -

인천시가 제안한 남동구 남촌마을 지역특화재생사업이 정부공모에 선정되면서 인천의 원도심에도 훈풍이 불게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이웃사촌과 3생(生)(자생·상생·재생)하는 꽃피는 남촌’ 도시재생사업이 지역특화재생 분야 국토교통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앞으로 4년간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역특화재생은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및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이다. 지난 7월 발표된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개편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유형이다.

시는 정부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 특화재생을 적극 발굴하고자

군·구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2차 사전 컨설팅과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수시 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남동구에서 신청한 남촌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인천시 대표 사업으로 선정해 국토부 공모에 신청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전국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지원 타당성 검증 및 발표평가, 실무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이웃사촌과 3생(生)(자생·상생·재생)하는 꽃피는 남촌’은 개편된 도시재생정책을 적극 반영해 골목상권 자생 거점시설인 ‘희망꽃 창작소’, ‘꽃피는 남촌 가(街)’, ‘이웃사촌 어울마당’ 등을 마중물 사업으로 기획했다. 꽃식초, 수제두부, 수제청 등 지역특화로컬브랜드를 육성하면서 주민·상인·기업·학계·행정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 조성을 제시한 것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산책공간 조성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방재기능이 강화된 지역 내 노후 집수리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새 정부 정책에 맞춘 우리 시의 맞춤형

형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이번 사업들을 충실히 추진해 남촌마을이 지역특화재생 분야의 롤모델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웃사촌과 3생(生)하는 꽃피는 남촌 마스터플랜

